



패러다임의 대전환 없이는 위기극복이 불가능하다

송 대 희 (KDI 국민경제교육연구소장)

당면 경제위기 극복대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첫째는 충분한 외자의 신속한 조달이다. 둘째는 국내 경제구조조정 of 과감한 실천이다. 거의 매일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는 대책들이다. 이 두가지를 위하여 정부와 업계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발표하고 있다. 술한 주말 밤을 지새는 것 같은데도 우리 경제는 회복되기는 커녕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불러도 대답없는 외자유치

첫번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외자의 신속한 조달은 이번 경제위기의 불길의 근본적으로 외화부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외화조달로써 위기의 불길을 끈다는 소위 이열치열의 치유법이다. 사실 지금이라도 충분한 외화가 조달될 수 있다면 그래서 중앙은행의 외화보유고가 넉넉해진다면 현 경제위기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우리의 신용도가 바닥권으로 떨어진 것도 따지고 보면 보유외화가 바닥이 났기 때문이었다. 돈만 있다면 기업위기도 국가위기도 모면할 수 있는 것이 시장경제의 냉엄한 현실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외화조달에 가히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할 것은 거의 다 개선한 셈이다. 그것도 불과 몇 개월만에 제일 먼저 자본시장부터 과감한 개방의 물꼬를 텄다. 외국인 주식보유한도 설정을 당연한 것으로 알았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지금은 외국인 주식보유한도 설정이 거의 폐지되어 버렸다. 외환이동도 완전 자유화되었고 환율변동폭도 자유화되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에는 한미투자협정의 타결을 통하여 외국인이 투자 면에서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대형 시중은행의 주식이 제발 외국인에게 팔려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굴지의 재벌들이 앞다투어 계열회사들을 바젠세일로 해외시장에 내놓고 있다. 정부는 한전, 통신공사, 한국중공업 등의 기간 공익사업들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매각하겠다고 공공연히 공언하고 있다.

이렇게 외화조달을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들의 노력은 안타까울 정도다. 더이상 무슨 추가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은 인정해주어야 한다. 비부채성 외화조달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와 기업은 대책없이 외화차입에 나서야 한다. 이미 정부는 금년초 40억달러 상당의 국채를 해외시장에서 발행한 바 있다. 물론 상당히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서야 차입할 수가 있었다. 추가로 더 차입하고 싶었지만 점점 높아만가는 리보 플러스 알파를 감당할 길이 없어 우리의 대외적 금융시장이 유리하게 조성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외국투자자들은 알미울 정도로 아직은 냉담하다. 슬그머니 들어오는가 하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목타는 구조조정의 실천

두번째 경제위기 극복대책이란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경제구조조정의 과감한 실천이다. 1997년 12월 3일 IMF 구제 금융을 받기로 약정한 날부터 IMF당국과 미국의 재무성은 한국경제 구조조정의 과감한 실천을 주문해왔다. 한국은 또 IMF당국이 요구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실천해나가겠다는 것을 누누이 천명해 왔다. 어떤 때는 IMF당국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즉 IMF요구의 120%를 달성하겠다고 의욕을 내비치기도 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IMF 당국이 요구하는 경제구조조정은 금융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자본시장 및 상품시장의 개방,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이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라는 주문과 같은 전방위적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IMF가 아니라도 우리가 하려고 하던 일이라면 정부를 이를 수용하였다. 또한 한발 더 나가서는 IMF를 등에 업고서 그동안 우리가 하려고 해도 못하였던 구조개혁을 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잘 되었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전문가들도 많았다. 사실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은 우리들이 오래 전부터 수없이 주장해왔던 그러나 별로 성과있게 추진시켜오지 못했던 해묵은 숙제였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구조조정의 과감한 실천은 답답하리만큼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얼마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까지 졸속이 되더라도 경제분야별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관계 장관들을 채근했다는 보도가 있었을 정도다. 졸속이 교(巧)보다 낫다는 것은 손자병법에도 있다. 고용조정관련 법제가 개선되었지만 아직 필요한 정리해고를 실천에 옮기는 데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고 대기업의 소위 빅딜은 된다 된다하면서 벌써 몇 개월째 공수포다. 그리고 작년에 정리되었어야 할 한보와 기아도 여전히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처리도 아직은 그런식이다. 오늘날 한국경제는 마치 고장난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방치된지 일년이 지나도 치우지 않아 교통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고도 할 수 있다.

파라다임의 대전환 없이는 위기극복이 불가능하다

제도를 고치면서 동시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민족국가의 폐쇄경제에서 무국경시대의 열린경제로의 대변화에 걸맞도록 우리의 관행이 달라져야 한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 들어 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과 경제구조조정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의 파라다임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파라다임은 말할 것도 없이 투명성과 개방성이다. 투명성은 민주적·합리적 사고를 전제로 한다. 개방성은 경쟁과 효율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기술수준과 인프라와 교육수준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섣뚱 한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이 적자가 난 것이 문제가 아니다. 기업은 적자가 날 수도 있고 부실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제시된 적자규모와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데 있다. MIT대학의 돈 부시 교수는 한국에 교육수준이 높은 인적자본이 많지마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그것은 한국의 인적자본은 시킴을 받은 일을 추진하는 데는 우수할지는 몰라도 창의적 추진력은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높은 교육수준은 이제 별 쓸모가 없다.

목하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금융 구조조정이나 기업 구조조정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고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병의 원인이 있는 나쁜 버릇을 스스로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과 같다. 계속 자극성이 강한 음식을 뿌리치지 못하니까 위장병이 낫지 않고 줄담배를 끊지 못하니까 컨디션이 계속 안좋을 수 밖에 없다. 연고주의, 한탕주의, 획일주의, 그리고 오만, 과시, 무례, 무경우, 무책임 게다가 막무가 내식 밀어부치기……. 허겁지겁 살면서 형성된 이런 잘못된 버릇들은 이제 버려야 한다. 이들을 버리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위기극복 노력은 이카루스의 꿈처럼 허망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생각과 관행을 고치는 일이 핵심이다.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파라다임을 우리들은 과연 고칠 수 있는가. 얽히고 설켜서 고쳐지기 힘들고 딱딱하게 굳어 있어 깨뜨려 지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고치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 6.25 한국전쟁으로 참담하게 고통 당한 후에 정신차렸듯이 IMF경제위기로 철저히 무너진 후에 다시 일어 설 것인가?

필자 약력

영남대 영문학사(1970)

미국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경제학 석사(1976)

미국 Pen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1980)

미국 Stanford 대학 초빙교수(1990)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1995)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소장 (1996-현재)

한국 공기업 학회장(1991-95)

World Bank 공기업부문 Consultant (1990-현재)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법인회원, 개인회원
- 후원회원에 대한 주요 서비스:
 - 연구원 주관 행사에 우선 초청 및 참가비 할인
 - 연구원 발간 각종 간행물 및 회의자료 제공
 - 주요 행사의 녹음 테이프 제공
 - 법인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법인회원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 후원회비에 대한 세금 공제 근거:
 - 법인회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4호
 - 개인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4호
- 회원 가입 문의: 551-3334~7

세 계 경 제 연 구 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
전화: 551-3334/7 Fax: 551-3339
E mail: IGENET@chollian.dacom.co.kr